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8

골든클럽 회장 이취임식

3월 30일 오후 12시 30분에 Manhasset, L.I.에 있는 Pearl East에서 이준행 명예회장 임호순 정해민 고문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손경택 회장과 제7대 홍종만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손 회장에게 골든클럽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요약한 사진 패널과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였다. 손 회장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이준행 명예회장은 새로 취임하는 홍 회장에게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골든클럽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발전기금으로 만 불을 기부하였다.



(왼쪽부터) 김정필 정해민 주상선 손경택 이준행 홍종만 임호순 김병순

제7대 골든클럽 회장에 취임하면서

뉴욕동문 모두의 '운동장'이 되고 '사랑방'이 되는 골든클럽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장 홍종만 (공대64)

2010년 2월 이준행 회장님이 골든클럽 회장에 추대되면서 제가 총무로 지명되어 그동안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추진하던 클럽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Newsletter 발간, 행사 다양화 및 결과 보고, 투명한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Digital camera를 구입하여 사진과 동영상 을 찍고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별 관심 없던 Computer를 구입하여 Word, Excel을 배우고, Photo Shop을 이용하여 필요에 맞는 사진 편집 요령도 익히게 되었고, 매년 3월 하순에 신년 교례회를 주관하면서 대중 앞에 나서는 용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훈련받고 배우던 제가 정인식 5대 회장, 손경택 6대 회장의 대를 이어 골든클럽 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김정필 회원이 사무총장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뉴욕 동문 모두의 '운동장'이 되고 '사랑방'이 되도록 골든클럽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임원 회의와 회보 편집회의를 병합하여 '운영위원회'가 골든클럽 운영과 회보 편집을 함께 다루도록 하고, 효율성이 인정되는 시점에 회칙변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까지의 주요 행사인 골프, 산행, 피크닉, 단체 여행에 추가하여 회원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

하며, 시대 변화에 맞추어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운영위원 2명 정도는 여성회원을 위촉하고자, 관심있는 여성 회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의 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골든클럽의 주요 활동 중 '운동장'은 주로 제가 관리하고, 회보발간 등 '사랑방'은 윤현남 부회장이 계속 주관합니다.

골든클럽 운영위원

- 명예회장 이준행(공대 48)
- 고문 임호순(공대 52)
- 고문 손경택(농대 57)
- 상임고문 정해민(법대 55)
- 감사 오순문(사대 68)
- 회장 홍종만(공대 64)
- 부회장 윤현남(공대 64)
- 사무총장 김정필(공대 71)
- 운영위원 주상선(공대 73)
- 운영위원 오성(법대 76)
- 운영위원 김병순(사회대 82)

6대 골든클럽 회장을 마치면서

6대 회장 손경택 (공대57)

경애하는 회원여러분께,
제가 이번 이달 3월 말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을 퇴임하게 되어 퇴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하기는 합시다라는 여러분과 떠나는 것은 아니고 전이나 다름없이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클럽 행사가 저의 노년 은퇴 생활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Pandemic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들의 주요 연례행사인 신년교례회 겸 총회를 못 하게 되어 매우 섭섭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Newsletter를 결간없이 매월 발간 할 수 있어서 다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증거로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 은퇴 생활의 중요한 생활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수한 재능과 열성적,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임원진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 덕입니다.

느지막이 한 번 더 SNU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뒤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준행 명예회장님, 임호순 창립발기 선배님, 정해민 상임고문님게도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만 신임회장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ope all of you and your families will lead healthy and happy lives for years to come. 감사합니다.

손경택 드림



골든클럽 새봄 맞이 하이킹 안내

Pandemic 상황에서 이제까지 외부접촉을 삼가며 집콕으로 소일했으나, Covid Vaccine 공급이 계속되면서 접종을 마친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내 모임은 자제하더라도, 산행은 야외에서 자연스레 거리가 유지되며, 산들바람에 바이러스도 희석되어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 날씨에 맑은 공기 마시며 Harriman State Park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기 바랍니다.

- * 일시: 4월 14일(수) 9:00am
- *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 * Trailhead: Reeves Meadow Visitor Center, (산행지점에는 9:30am)
- * GPS Coordinate; 41.17384, -74.16859
- * 준비물: 간단한 점심 도시락과 마실 물
Hiking Pole
- * 참가 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2021년 첫 골프대회안내

드디어 바이러스도 꺾이기 시작하고 긴 겨울방학도 끝이 났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해 첫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모두 참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시: 4월 22일(목) 10:00am
- * 장소: **Sunset Valley Country Club**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 * 참가 신청: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 참가회비: \$100 (그린피 카트 디너포함)



고 장동만 회원 소천

고인은 11월 하순 맹장치료차 Edgewater Hackensack 병원에 다니다가, Covid에 감염되어 1주일간 병원치료 후, 요양원에 머물고 1달만인 12월 말에 귀가하였으나, 식욕부진으로 체력 회복이 여의치 않아, 근래에 다시 요양원에 계시다가 3월 17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작년 말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고애자 선배님을 아파트 로비에서 만나 준비한 음식을 전해 드릴 때, "80대 중반 나이에 Covid를 극복하고 살아서 퇴원"했다고 감사함을 토로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Covid는 극복했으나,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식사를 못하며 체력회복에 실패하여 결국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장동만 회원 '천국 환송 예식'이 뉴욕 하모니교회 윤상훈 목사 집례로 3월 19일(금) 저녁 5시 Fort Lee 김기호 예의원에서 조촐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임호순 선배님 내외분을 비롯한 20여 명의 골든클럽 회원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 고애자 회원을 위로하며, 정해민 선배님의 고인 약력 소개와 이흥빈 선배님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장동만 선배님 가시는 길에

늘 두 분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고 누구보다도 제 편에 서서 손들어 주실 거라 믿을 수 있던 분---인자하신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분, 2020년 11월 5일 골든클럽 골프 모임 날, Covid-19로 너무 오랜만에 뵈던 그 날 너무도 수척해지신 체구로 그래도 혼자 온 제가 안되어서 골프백을 받아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함께 들었던 것이 마지막 뵈 날이었어요. 지난 30년 가까이 전화로 평상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마다 늘 좋은 얘기만 해주시던 자상한 음성이 많이 생각납니다. 몇 가지 음식을 가져다드리겠다고 했을 때 전혀 잡숫지 못하니깐 수고하지 말라고 강경히 말씀하시던 그 날이 마지막 전화 통화였어요.

늘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던 분, 보잘것없는 글이라도 장 선배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전혀 고칠 곳 없이 잘 썼다 하시면 너무도 신뢰가 가서 즐겁고 우쭐해지는 한마디 말씀. 2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 간 분을 위해 써주신 예쁜 글—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고애자 씨 뒤에 남기고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죽음이란 삶의 모든 인연 미련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근심, 걱정, 아픈 가슴 모두 쓸어 버리고 넓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이흥순 올림
[5월호는 고 장동만 회원을 기리는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겠습니다.-편집팀]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곽승용) Atlanta 이주 후 집 정리를 마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Golf-outing uniform을 갖춰 입고 안부 인사 전합니다.



(추재옥) 백신 접종을 마치고, 시간나는 대로 허드슨 강가 Palisades를 산책하며, 4월 22일 골프대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학린) Vermont Okimo 스키장에서 손자들에게 100살까지 스키 강습을 하겠노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김정필) 3월말 출산 예정인 둘째 딸의 Baby shower party를 하면서 가족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최진영(문리55)

요즘 모든 영상매체들을 살펴보면 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던 영상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젊고 활기찬 음악과 동작을 선호했던 시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두운 잿빛으로 덮으면서 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인간됨을 다해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것을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의 영상이 유난하게 많이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신생아나 두서넛 나이에 어린아이들이 해죽해죽 웃거나 재롱을 떠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어린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교감과 사랑이 오가는 장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나 젊음을 찬양하고 노인들은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요양원으로 행할 사람으로 여기던 풍조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귀중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하루에 8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직장 일을 보는 각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발 물러서서 그동안 겪어온 오랜 경험에서 오는 침착함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같이 있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여러 영상 중에서 몇 가지가 가슴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같이 춤을 추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고 길을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는 저쪽에, 손녀는 이쪽에서 서로 바라보며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리듬 한 번 틀리지 않고 춤추는 모습이 가슴 찡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다시피 한 영상 전화 영상도 사랑 나눔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 편, Barnes & Nobles 같은 대형서점에 가면 언제나 상비되어 있는 작은 수첩 크기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Keep Calm and Carry On! (침착해라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 해라!)입니다. Keep Calm and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Keep Calm and Have a Coffee 등. 각각의 책 속에는 선인의 유명한 말이나 일반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감동적인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손바닥만 한 책들을 좋아합니다. 늘 포켓 속에 넣어 다닐 수 있고, 좋은 격언이나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면 친구들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Keep Calm and Love Laughing Children!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이 왔네요.

조승자(가족 회원)

이 봄에 뜰에 뭔가를 심어보고 싶다면 peatmoss (Home Depot 등에서 살 수 있음)를 먼저 뿌리고 흙을 파서 엽니다. 왜냐하면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가 잘 자라니까요. 그리고 garden soil도 준비하세요. 무엇을 씨로 심고 무엇을 모종으로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씨로 뿌리는 것 (상치, 쑥갓, 근대, 파, 아욱 등)은 대개 4월 초쯤에 뿌리고 모종으로 심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이 적당합니다. 부지런하셔서 너무 일찍 심으면 느닷없이 서리가 내려 죽고 마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까요. 오이나 호박은 빈 화분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씨를 심으면 일주일 이내에 싹이 납니다. 좀 자란 후 (본 잎이 두세 개 나온 후)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고추나 가지는 발아가 잘 안 되므로 모종을 심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를 심을 때는 줄기가 끝없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서 울타리 쪽을 택하세요.

씨를 뿌릴 때는 고랑을 파고 garden soil을 깔고 씨를 뿌리면 채소나 꽃들이 잘 자랍니다. garden soil의 효능은 약 3개월 지속된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내성이 생겨 잘 안됩니다. 자리를 바꿔가며 심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일찍 뿌린다고 일찍 자라지는 않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뜰을 가꾸시면 올한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거둘 겁니다.

해가 잘 드는 뜰의 돌레에 Marigold (금잔화)를 심으면 꽃도 보고 약용으로 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 꽃은 특히 햇벌을 좋아하지요. 금잔화에는 디아잔틴과 루테린이 많아 황반변성을 예방한다고 해요. 저는 꽃잎을 말려서 매일 조금씩 먹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아 서요. 말린 꽃잎은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차로 마셔도 향긋하고 좋답니다.



저는 매년 가을에 마늘을 심어 다음 해 5월 중순에 캐는데 올해는 마늘 캔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 보려고 2월에 플라스틱 그릇에 흙을 넣고 묻어 창가에 놓았더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순이 많이 자랐어요. 이걸 5월에 두세 마디씩 끊어 심으면 가을에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도해 보려고요.

여러분, 이 봄에 싱그러운 꽃과 야채를 길러보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손경택(농대 57)

골든클럽 6대 회장

“물심양면 도움 주신 회원과 임원들에 감사”

지난 2017년 3월 골든클럽 회장에 취임한 후 한 차례 연임하여 4년간 골든클럽을 이끌어온 손경택(82.농대 57) 6대 회장을 회보 편집팀(홍종만 부회장, 오성 편집위원)이 최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6월 초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항생제 치료도 받은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이 두 달간 정성껏 돌보아주면서 완쾌하여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0여 년간 메달리스트, 올해의 선수상을 여러차례 받는 등 골든클럽에서 최고 수준 골퍼였던 손 회장은 지금은 18홀은 숨이 차고 9홀은 그런대로 할만하다면서, 아침저녁 5천보씩 하루 1만보를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9년 1월 서울 가회동에서 태어난 그는 종로 교동 국민학교 시절인 11살 때 6.25 전쟁을 겪었다. 당시 조흥은행 과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14후퇴 때 전 가족이 은행의 트럭 짐 위에 올라타고 대구로 피난을 갔다. 방은 조흥은행 대구 지점이 연어주었지만 석 달간 먹을 것이 없었다. 5남매(2남 3녀)의 장남인 그는 동생들이 배고파 울면 쌀보리 한 줌으로 죽을 끓여 같이 먹었고 산에 올라가 나물을 캐어 먹기도 했다. 대구 피난 시절 국가고시를 통해 경기중학교에 입학(경기 53회)한 그는 운동신경이 발달해 중학교 2학년 때 야구선수로 활약했다. 창덕여고에 주둔한 미군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아버지가 선물로 받아온 스키, 골프채가 집에 있어서 17살부터 스키를 탔다.

고등학생 때(1956년) 대관령 스키장에서 전국 스키대회가 열려 아는 선배와 함께 갔는데 양 떼들을 보니 너무 좋았고, 농대에 진학한 선배를 뒤따라 그도 농대(축산과)에 들어가 수원 캠퍼스에서 염소, 양 등 동물과 함께 지냈다. "농림부 축산 국장이 농대 강

사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유난히 나에게 잘 해주었어요. 축산 국장의 아들인 농대 동창이 어느 날 '캐나다에 간호원 이민을 갔던 누이가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는데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한번 만나나 보자는 마음으로 서울의 한 다방에서 처음 본 동갑내기 황정희(82) 씨가 결국 그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딸

손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점심을 내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핸디 12까지 실력이 향상됐다.

1998년 8월 골든클럽이 윤정옥(초대회장), 임호순, 정택수 등 약 15명의 발기 회원에 의해 창립됐으나 그는 "나는 아직 안 늙었다"며 3년간 가입을 안 하다가 장인의 상사였던 정택수 선배(골든클럽 3대 회장)를 동창회 모임서 만나 골든클럽에 조인했고, 이후 오랜 기간 총무로 봉사했다.

2017년 3월 신년교례회 및 총회(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6대 회장에 취임한 그는 회칙을 개정, 회원 연령 자격(60세)을 삭제하여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메인주 Poland Spring 리조트 골프 트립(2017. 7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단체 방문(2018. 4월), Pizza 데이 피크닉, 롱우드 가든 단체 방문

(2019.7월), 플로리다 West Palm Beach 동계 골프 Trip(2020.1)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회원들의 친목 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에는 회원들의 사랑방이 될 Daum 카페(cafe.daum.net/snugoldenclub)를 개설했고 올해는 골든클럽 2021 디렉토리를 소책자 형식과 함께 새로 인쇄하여 발송, 회원들의 유대강화를 도모했다.

카페에서 만난 손 회장은 "회원들이 보고 만나는 게 즐겁고, 회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단합하니까 골든클럽이 누가 봐도 부러운 모임으로 성장했다"라며 "작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어렵게 지냈지만, 회보를 한 번도 결간하지 않고 골든클럽이 잘 운영돼 온 것은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담정리: 오 성]



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향군인에 집을 마련해 주는 연방정부 부서(직원 50명)의 최고 직급자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은 코넬대를 졸업했다.

1972년 도미해 50년 미국 생활을 한 그는 무역 일을 하다 67세에 은퇴를 했고, 부인은 74세까지 간호사로 일하다 8년 전 은퇴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있으니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좋고 아내와 더 친해진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선배가 한국에서 9홀 골프장에 데려가 처음 골프 구경을 한 그는 미국에 오자마자 골프를 시작했다. 그러나 10년간 열심히 해도 안 늘어 집어치웠다가 다시 시작했다. 김영덕 회원과 점심 내기 골프를 자주 했는데, 거의 매번 점심을 내야 했다. 은근히 약이 오른 그는 책을 사서 룰을 공부하고 골프 비디오 테이프 30개를 보고 또 보며 절치부심 연습했다. "처음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뒷마당에 1,000불을 들여 연습용 네트를 치고 아이언으로 하루종일 연습하면서, 골프채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관한 논란이 팽배한데 문제의 근원, 심각도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완화 대책들은 문제가 광대한 탓인지 일반 시민의 이해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회보에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2편으로 나누어 지난달 1편에서 온난화의 원인의 중심에 대기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시작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번 회보에는 지구 전체의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과 어떤 완화,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다루려 한다.

지구 온난화: 사회, 경제적 영향과 해결 대책

윤현남(공대64)

기후 변화와 사회, 경제적 영향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자연환경을 훼손(빙하와 영구 동토의 녹음, 사막화 등)하고 이로 인해 자연재해(태풍, 산불, 열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생태계의 변동을 가져와 동물, 어류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에 연계되어 저위도 지역 사람들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생활 수준도 급락하면서 인류의 대이동(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이민, 중남미 난민의 미국 행)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막심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2020년 피해 액수는 약 \$100 billion이다. 태풍 피해가 가장 커다란 부분으로 \$50 billion이었고 California의 산불의 경우 진화 비용만 해도 \$3 billion이나 되었다 한다. 태풍,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엄청난 경제 부담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자연과 사회의 근본적 변환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 한다.

가장 큰 피해지역은 열대 지역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70% 이상이 이 지역으로 떨어진다. 온실가스 탓으로 에너지 방출을 못 하면 표면 온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역 국가들은 자연 자체의 변화(농지와 산림 손실, 사막화, 어류 급감)가 급진 되고 있다. 농지, 산림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에 남한의 12배의 넓이가 손실되었고, 남한 넓이의 40-70배의 땅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가 가뭄, 폭염, 저습도의 형태로 바뀌면서 농, 수산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어 생활 자

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지역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인데 2030년까지 2억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또 중앙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무작정 이민 위기가 사태의 절박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완화 대책

지난 200년의 지구 온난화(1.5°C)와 기후 변화는 대기의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석탄과 석유(fossil fuel, 화석 연료)를 주 연료로 산업, 경제 발전을 드라이브한 것이 주요인이다. CO₂는 화학 반응도가 낮아 대기 속에 1000년 이상 남아있어 지구 온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산업, 경제 구조를 바꾸어 더는 CO₂를 대기에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세계의 CO₂ 배출량이 51 giga ton/year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목표를 2050년까지 성취하기로 약정했으니 큰 발전이 기대된다.

과학자와 정책수립자들 사이에서는 위의 목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수행하려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Bill Gates(of Microsoft fame)가 발간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라는 책에서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과 필요한 혁신적 기술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꼭 권하고 싶다. 자세한 설명은 책에 맡기고 중점 접근 방향만 간단히 기술한다.

1. 가정, 산업장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력으로 통일하고, 발전 과정에서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기술만 사용해야 한다. 유망한 기술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새로 개발되고 있는 비 폭발 공정) 등이 있다. 부수해서 배전 손실(배전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전력 손실이 50%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전기 저장(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가능) 기술이 개발되어야 만한다.

2. 제조 시 대량의 CO₂를 배출하는 제품(시멘트, 철강)들을 대체.

3. 육지 교통수단은 모두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고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 항공용 CO₂ 비배출 연료(bio fuel) 개발이 시급. 선박용 엔진은 대규모인 경우 안전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고 소규모용으로 bio-fuel을 사용.

내가 할 수 있는 일

2050년까지 지구를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일은 골든클럽 회원들에게는 가까이 느껴질까? 내 손주들을 위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남기는 마음으로 접하면 동기가 부여될까? Bill Gates 책 읽으며 생각난 아이디어 몇 가지;

“다음 차는 전기자동차”,
“Beyond Meat 햄버거”,
“내 생활 속에서 CO₂ 가능 감소량 찾아보기?”,
“손녀들과 지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토론하기.”
“우리 집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하기”

회원 명단 (108명 / 2021-03-22)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오인석	이흥빈	최진영
강에드	김영덕	성기로	유규환	임도혁	최철용
강영선	김영만	손갑수	유무영	임호순	최학주
계동휘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정수일	추재욱
고애자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조달훈/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조승자	한용오
곽선섭	김재경	손옥화	이국진	정해민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근숙	이준	조상근	하용웅
구달희/	김종욱	송용길/	이대연	주상선	홍사만
권정덕/	김창수	송현자	이대영	주재양	홍정표
홍선경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진봉일	홍지복
권영대	김한중	신진식/	이수호	천병수/	홍종만/
권태전	김현중	이정자	이용대	최구진	홍예경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최병우	
김광현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최수용	
김동건	박기환	오순문	이종석	최순채	
김문경	박준구/	오용호	이준행	최준희	
김문언	최속희	오유섭	이행순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3-22)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16일(수)	Picnic or Pizza Party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1일(수)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8일(수)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1일(수)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일(수)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48명 / \$4,800 / 2021-03-22)

강에드	노용면	송학린	유무영	임호순	홍지복
강교숙	박준구/	신진식/	윤종숙	정수일	홍종만
계동휘	최속희	이정자	이대연	정해민	홍예경
곽상준	박희병	송근숙	이용대	천종화	
곽승용	배상규	양인회	이종대	최준희	
김동건	성기로	오순문	이종석	최철용	
김상만	손갑수	오용호	이준	한용오	
김한중	손경택	오유섭	이행순	한태진	
김현중	손옥화	유규환	이흥빈	홍선경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16명 / \$7,600 / 2021-3-22)

곽승용300	신진식300	이행순200	한태진500
김한중300	양인회200	이흥빈100	
성기로300	오용호100	임호순300	
손경택1,000	유규환200	정해민500	
송학린1,100	이준행2,000	최철용300	

2021년 입학비 납부 명단 (3명 / \$600 / 2021-3-22)

남종현
김한중
윤종숙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성기로 (약대57)
신원철 (대학원)
오인석 (법대58)
유무영 (공대66)
이준희 (음대95)
진봉일 (공대51)
최철용 (농대57)
홍지복 (간호7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입학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